

자선사업을 하는 불온한 기업가들

이형진/〈아름다운재단〉정책위원

최근 미국 사회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화두의 중심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에 있다.

이미 2001년에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정작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갑부들이 나서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데 오히려 부자들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운동을 벌이는 부자들은 미국 최대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빌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H 게이츠 2세, 언론 재벌 테드 터너(터너는 지난 1997년 미국 기부금 전체의 30% 정도인 10억 달러를 기부한 바 있음), 억만장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영화배우 폴 뉴먼 그리고 전통 자선사업가 집안으로 꼽히는 록펠러가의 데이비드 록펠러 주니어 등이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부(富) 연합’ 회원들이 ‘거액 상속을 통한 귀족계급화를 막자’는 구호 아래 모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자 모두가 상속세 존속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 대다수는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가족 한 명이 세상을 떠날 경우 상속세 때문에 기업 자체를 매각해야하는 상황까지 생긴다며 ‘죽음의 세금’인 상속세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같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것은 이미 100년이 넘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한 신흥 갑부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때 선택이 없는 선택의 폭을 가졌다. 신흥 갑부들은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1880년대로 접어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연방상속세법은 전쟁수입인지법(the War Revenue Act, 1913)에 일부 명기되기도 했지만 1902년 아예 폐지됐고, 16번째 개정조항(the Sixteenth Amendment, 1913)이 비준될 때까지 소득세법조차 시행되지 않았다.

즉, 신흥 부자들은 그들처럼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또한 돈을 쓰는 데 제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당대 설립되기 시작한 대규모 재단들은 그 하나의 해결방법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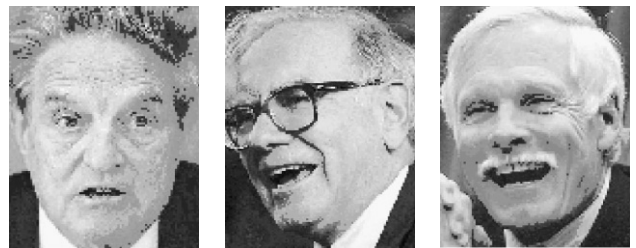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1914년 설립된 왈쉬와 연관산업위원회(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s)였다. 위원회의 구성

은 록펠러회사와 연관이 깊다. 1913년부터 1914년까지 록펠러석탄회사와 다른 회사들의 연합대항은 이른바 ‘Ludlow Massacre’로 불리던 시민전쟁으로 치달렸고, 결국 국경 수비대와 연방병력이 휘말리면서 수많은 파업노동자가 희생당하게 되었다. 1913년은 록펠러가가 3억5000만 달러를 출연해 록펠러재단을 설립한 해였다.

위원회는 미국의 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한 순회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카네기, 록펠러, 포드 등 ‘자선사업을 하는 불온한 기업가들’을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영속하는 기부의 위험성, 재단과 모회사의 관계, 의회와 대중을 위한 재단의 책무, 학문연구의 후원 문제, 재산축적과 부동산 영구소유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이들은 노동자에게 부를 분배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한 연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위원회는 1916년 최종보고서인 맨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재단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지출에 ‘저항’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자들의 대규모 기부는 계속됐고, 이에 대한 반대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벌어진 상속세 폐지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죽으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자선사업을 하는 불온한 무리들.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테드 터너

• 필자 소개 •

필자 이형진씨는 협회 〈나눔문화사업〉 자문위원으로 2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